

다니엘서 - 번호 156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베일을 벗기기: 오늘을 위한 예언적 진리에 대한 밀러파의 관점

Jeff Pippenger
2024-03-24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나타내는 원리, 곧 그가 항상 끝을 시작과 연결하여 드러내신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첫 절에서 다니엘을 가리키는 벨드사살은 그 동일한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한 대표된다. 우리는 벨드사살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고 확인했는데, 그들은 1절의 'thing'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예언적 역사에 관한 'chazon' 환상을 이해하는 자들이다. 그 예언적 역사에 관한 그 환상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며, 이는 2,520년에 해당한다. 벨드사살은 또한 1절의 'vision'도 이해하는데, 이는 2,300년의 'mareh' 환상으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나타나심을 나타낸다.

제12장에서 다니엘은 첫째 천사의 운동과 또한 셋째 천사의 운동을 대표하는데, 두 운동 모두가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제12장에는 밀러주의 운동의 일부였던 최소 다섯 가지 진리가 있으며, 그것들은 셋째 천사의 운동도 경험하고 이해해야 하는 진리들을 대표한다. 두 운동은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며, 두 운동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예언적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두 운동은 밀러가 인도되어 알아보게 된 첫 번째 예언적 진리, 곧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대표되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세 가지 병행되는 경험과 이해는 그 장의 마지막 몇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일의 제사가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날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쉬었다가 날들의 끝에 네 분깃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2:11-13.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세 가지 주된 예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며, 예언의 영을 고수한다.

그가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9, 10.

밀러주의자들은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를 의미한다는 것과 'the daily'가 '제거된 때'가 508년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의 증언'—곧 '예언의 영'—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니, 예언의 영은 밀러주의자들이 'the daily'에 대해 이해한 바가 옳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밀러주의자들은 538년에 교황권이 권세를 잡게 되는 것에 맞선 이교의 저항이 508년에 제거되었음을 이해했다. 밀러주의자들은 옳았지만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1절에서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백성은 508년부터 538년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침례 때 권능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분의 역사 속 30년간의 준비 기간으로 예표된 예언적 기간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 예언적 기간이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예언적 기간을 나타낸다는 것과, 그 세 기간 모두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마무리되는 144,000명의 인치는 때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두째 장에서 다니엘은 밀러주의자들과,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이들에게서 반복될 다섯 가지 중요한 진리와 체험을 대표한다. 밀러주의자들의 세 번째 진리와 체험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 ... 주께서 ... '심판의 때의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엘렌 화잇의 저술, 곧 예언의 영을 거절하는 것이다. 밀러주의자들과 셋째 천사의 사자들의 네 번째 진리와 체험은 1,335년의 예언인데, 그것은 'daily'가 제거된 해인 508년에 시작되었다.

508년부터 시작하여 1,335년을 더하면 1843년에 이르게 되지만, 단순히 1843년만이 아니라 그 예언은 실제로 1843년의 바로 마지막 날을 정확히 지목한다. 왜냐하면 그 예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cometh"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naga"이며, "만지다" 또는 "손을 대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기다려서 1843년에 손이 닿거나 손을 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 된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기다림의 축복은 첫 실망을 겪었지만 지체되는 목시를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주어졌다. 밀러파가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을 성취하며 "지체되는 목시"를 기다렸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다. 그 지체의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비유를 성취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그 목시가 "말할" 것임을 보았다. 그들의 지체의 때와 실망은 2,300년이 1843년에 끝난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했으나, 그 목시는 실제로 1844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의 실망은 1843년이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끝났을 때의 경험에 근거해 있었다. 그들의 실망과, 그 후에 기다리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선포된 그 복은 모두 1843년의 바로 마지막 날, 곧 1844년에 "닿는" 또는 "이르는" 그 날에 근거하고 있었다.

십처녀의 비유의 성취로서의 첫 실망의 경험은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자들 가운데서 이해되고 반복된다.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자들이 인정하게 될 다섯째 진리와 경험은 "날들의 끝"에 다니엘이 "자기 분깃에 설 것"이라는 점이다.

"봉인이 제거되고 진리의 빛이 그의 환상들 위에 비추어 온 이래로,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날들의 마지막에 이해되기로 되어 있던 그 증언을 증거하고 있다." Sermons and Talks, volume 1, 225, 226.

밀러파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에서 온 지식의 증가로 이루어진 정결의 과정을 경험했다.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자들은 1989년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에서 온 지식의 증가로 이루어진 정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다니엘서가 14만 4천인의 인침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분깃과 처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6권, 108.

한때 라오디게아인이었던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이들은 같은 책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면, 신자들은 전혀 다른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고 확고하다는 것이다. The Faith I Live By, 345.

한때 라오디게아인이었던 그들은 자신의 라오디게아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죽고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직설적인 증언에 응답하여, 무엇보다 먼저 살아나야 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이 부흥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도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첫째 되는 과업이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

성경의 약속은 누구든지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되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쪽.

다니엘서 12장에 제시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결말은, 마지막 환상의 첫 절에서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세 언약 백성을 형성하는 경험을 밝혀 준다. 그곳에서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다니엘은 2,300년의 내적 환상과 2,520년의 외적 환상을 모두 이해한다. 그는 '그 일'과 '그 환상'을 이해한다. 그는 하존 환상과 마레 환상을 이해한다. 그는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것과 성소와 군대가 회복되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올라이 강 환상과 히데겔 강 환상도 이해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업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 권세와 교황권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덜 말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주시는 일에서도, 묘사된 사건들에서도, 인간 대리자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며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도록 모든 일을 그렇게 조정하셨다. 다니엘서를 읽으라. 거기에 나타난 왕국들의 역사를 조목조목 되짚어 보라. 정치가들, 회의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으셨는지를 보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시날의 큰 강들인 율래와 히데겔 강가에서 그가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유대 민족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우리는 말씀을 마땅히 이해해야 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깨달으라는 권면으로 시작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교사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봉함된 책이라고 선언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외면했다. 겉보기에 신비로워 많은 이들이 열어 찢히기를 주저하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의 이 부분들에서 거두셨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이 봉함된 책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계시'라는 말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이 드러남을 뜻한다. 이 책의 진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휘장이 걷힌 채 거룩한 것들이 있는 성소에 서 있다. 우리는 바깥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되, 경솔하고 불경한 생각으로도, 성급한 발걸음으로도 아니라, 경외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될 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있다. 이 말씀을 탐구하는 이들은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타락한 식욕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과 관련된 것들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데 따르는 긴장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신앙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엿보는 듯한 광경을 허락받아, 마음과 생각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상으로 주어질 복을 누리기 위해 모두가 반드시 길러야 할 품성이 깊이 각인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고자 겸손하고 온유하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책에는 영생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이를 열심히 읽고 탐구하는 모든 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된다—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확고하다는 것이다.

하늘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이 보인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들은 그 후 밤모 섬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로 보완되었다. 이 두 책은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다니엘은 두 번 물었다.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한가?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너는 네 길을 가라. 이 말들은 끝의 때까지 감추어져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으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지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너는 안식하리니, 끝날에 네 분깃에 서리라.'

책의 인봉을 떼고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계시를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에 서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 세상에 선포될 종말의 때까지 봉인되어 있던 자신의 증언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동안,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의 선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봉인이 풀리며, 우리를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로 이끌어 간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말세의 위험 한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하겠는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관지어 읽으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112-115쪽.